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성경말씀: 눅9:18-26

3년 반 공생애, 3년간 갈릴리 사역 마감,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9:9)

오병이어 기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 주시는 창조자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로 가는 길,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확히 알려야 함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합니까?” 물으면 교만한 일
그러나 주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요5:39; 17:3)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천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19).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 4대 성인, 가장 훌륭한 사람, 대언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의견이 아니라 확신을 고백해야 한다.

지금 주님은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다(18). 그리고 베드로의 확신 고백이 나온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 베드로는 요6:68-69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확신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심(마16:18)

우리로 정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 희대의 사기꾼(수십억을 속임), 아니면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히 알아야 인생의 목표가 결정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대언자, 왕(즉 하나님의 특별 선택)

예수 그리스도는 3중 직무 수행자

1. 계시의 진보: 타락 이후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성경의 핵심 특히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 설립, 왕이신 그리스도(눅1:31-33)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의 예언의 핵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며 자기들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퍼지는 세상 기대(사2:1-5)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성육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메시아 왕국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확실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기독교가 서고 쓰러진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관 신고, 우리도 해야 한다.

때가 이르지 않음(21)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알리지 말라고 하심(21)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자,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자, 빵 문제 해결자
이런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임이 알려지면 큰 문제, 때의 문제

그리고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심(22).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함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스미스, 모하메드 No, 마귀의 적그리스도 No!

메시아의 희생과 죽음 예고(22)

침례자 요한,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한다.

“성전을 헐라, 사흘 dks에 다시 세우리라”(요2:19, 21), 멸절되어야 한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마12:38-40), 죽어서 세 밤과 세 낮 땅의 중심부, 부활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22).

아직 제자들의 이해가 둔하여 깨닫지 못함, 또 하나님은 숨기심
지금의 우리와 달리 그들은 부활 이후에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였다.

메시아와 십자가 그리고 사명

이 말씀 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이다. 즉 구원받은 뒤 우리는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이루셨기에.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왕관을 약속한다.

그 당시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다. 수치와 모욕과 거부의 상징,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십자가 목걸이는 상상도 못한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 형틀
십자가는 무엇인가? 괴롭히는 남편, 자식, 상사, 병 No!,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멸시
진리를 이야기하면 대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거부를 당한다. 소수만 좋아함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교만, 세우려는 것, 명예, 권세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사랑, 섬김, 희생으로
나, 가정, 교회, 사회

바울의 고백(고전2:2).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알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롬12:1-2).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라도 유익이 없다(25).

눅16의 부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지옥에 가면 허사, 영원의 시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26).

주님의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1.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요14:6), 2. 지옥 불의 심판(막9:42-49; 마10:28), 3. 성경 보존(마24:35)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의 핵심: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가? 시간, 성경, 애통, 섬김, 희생

요즘 곳곳에 지역 교회 움직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도와야 한다.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고난 다음에 영광, 왕국